

2004 서울국제

인쇄문화관 등 볼거리 '풍성'

올해로 10회를 맞는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는 4일(금)부터 9일(수)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태평양관 전관, 인도양관 반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2004서울국제도서전은 규모의 확대, 행사 다변화를 통한 도서전 의 '대국민 문화페스티벌화'를 주요 모토로 하고 있다. 단행본관과 아동관을 분리함으로써 일반 관람객의 이용편이를 높이고 단행본 출판사의 참가를 증대하며 아동·교육도서 전시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해외 참가사 및 저작권 에이전시의 적극 유치로 국제도서전으로서의 명성을 제고시켰으며 일반도서, 전자출판, 북아트를 비롯해 인쇄, 잡지 등 관련 전시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다.

주요 테마

(1) 단행본관, 아동·교육도서 전문관

자사의 출판 경향과 특성을 표현한 독립 전시관을 조성, 개별 출판사가 다양한 이벤트와 풍성한 독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판물에 대

한 인지도를 높이고 독자의 경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출판 방향과 독자 창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제관

국제간 문화 교류를 증진하고 저작권 및 도서 수출구매 등 출판물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전시의 장이 된다. 전문 통역 요원이 상주하여 상담을 원하는 국내외 관계자들의 만남을 주선, 원활한 계약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3) 우리사 대표 출판물전

개별적으로 참가하지 못한 출판사의 대표 도서를 일반 도서와 아동·교육 도서로 나눠 하위 분야별로 구분, 전시하고 청소년 선정도서, 우수학술도서, 자사 신문광고 도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열한다.

협력 전시회

(1) 전자책산업전 : 올해 3년째 맞이하는 '2004 한국전자책산업전'은 세계적으로 시장규모나 기술면에서 가장 앞선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다. 국내 전자책 서비스업체와 기술

관련업체가 대거 참가하고 특별 전시로 국내외 전자책 관련 첨단기술을 소개하는 기술관,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우수전자책을 전시하는 콘텐츠관, 무선인터넷을 통해 전자책을 시연하는 모바일관, 어린이용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소개하는 어린이관, 전자도서관 구축 솔루션과 사례를 소개하는 라이브러리관으로 구성되며 전자책산업 관련 기술 및 콘텐츠 분야의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이다.

(2) 북아트전 : 북 아트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 대량생산에 따른 획일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등장한 것으로 수작업을 통해 책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예술분야의 일종이다. 단순한 정보와 지식전달 매체로서의 기능을 뛰어넘는 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책의 조형적 의미를 되새기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책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3) 인쇄전 :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홍보를 중심으로, 고인쇄문화시연 및 체

도서전



사진은 지난 2003년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장면

협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영상물을 상영한다. 또한 지난해 11월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안 프린트 어워즈'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한 각종 상을 휩쓴 국내 6개 인쇄업체(한국AP, 흥보컴, 광인사, BGI, 하림씨엠, 해인기획)들의 수상작품이 전시된다.

(4) 잡지전 :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잡지의 전문분야를 망라하여 약 1500여 종을 전시하여 우리나라 잡지산업을 홍보한다.

특별 전시회

(1) 각국 금서의 변천과 사회사적 의미 : 금서라는 표현 자체가 무의미해져 가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거의 억제되지 않고 있는 요즈음, 한때 권위주의 시대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금서의 변천사를 엿보고 이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사적 의미를 조명한다.

(2) 볼로냐 라가찌상 수상작 특별 전시 : 볼로냐 라가찌상은 창작성, 교육적 가치, 디자인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픽션, 논픽션, 뉴호라이즌

분야의 우수 아동 도서를 시상하는 국제적인 상이다. 국내 청소년 및 아동 관람객에게는 보다 다양한 모습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국내 출판사에게는 창작력 고취와 외국 아동 양서를 국내에 번역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출판사가 최초로 픽션분야와 논픽션 분야에서 각각 우수상을 받아,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 '웰빙(WELL-BEING)' 관련 도서 : 행복, 여유, 건강, 잘먹고 잘살아가기 등으로 대표되는 웰빙을 주제로 다룬 책을 전시한다.

(4)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및 2005 주빈국 홍보관 :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2003년 기준, 102개국 6614사가 참가한 세계 최대의 국제도서전이다. 또한 80여개국 1만2천여명의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는 '人文 올림픽' 혹은 '문화 올림픽'으로도 불리는 문화행사이다. 197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주빈국가 프로그램은 본 도서전의 하이라이트로서 개최 당해 연도에 독일 뿐

만 아니라 전세계 2천여명 언론인들의 집중적인 보도의 대상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5년 주빈국으로 선정된 후, (재)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조직위원회가 '도서전-번역출판-예술공연-학술전시'의 네분과로 나뉘어 사업을 진행 중이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자체 및 주빈국행사의 준비과정을 홍보, 대국민 관심을 이끈다.

세미나

2004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하루한 건 이상의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북디자인 관련 포럼(북아트전 연계), 전자출판 관련 포럼(전자책산업전 연계), 도서관협회 세미나를 비롯해 APPA 초청인사 관련, 동남아시아 출판현황 및 진출 방안 관련, 독일출판인 초청인사 관련, 해외 유명 작가 및 해외 우수 출판사 초청 참가 프로그램 관련 세미나와 저작권 에이전시 및 출판사 해외담당자 초청 세미나 등이 계획되어 있다.

〈조갑준 기자〉